의소분 인수인계서

58기 워크샵 ‘택시드리벌’

유재나, 장소영, 최영진

1. 의상

의상을 준비할 때는 먼저 캐스트들이 의상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지 묻는게 이중 수고를 덜 것 같습니다 힘들게 구했는데 알고보니 캐스트가 그 의상을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 기운 빠지니까요.

그리고 의상 구하기 힘들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상관리에 신경써야 하는 점입니다. 캐스트들이 강한 분장을 하기 때문에 상의 목덜미 부분이 파운데이션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의상인 경우 신경써서 드라이클리닝을 맡겨서라도 깨끗한 상태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상관리에 신경쓰는 게 좋습니다.

2. 소품

대부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품이었지만 자동차 핸들커버나 천원, 만원 구권과 같이 주변에서 구하기 힘든 소품도 있었습니다. 핸들커버는 구입하였지만 옛날 돈의 경우 구할 수 없어서 복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흑백으로 복사하는 바람에 무대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권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복사를 하는 것 보다 신권을 사용하여 지폐 느낌이 나게 하는 것이 극의 흐름에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극이 끝난 이후 소품은 의상보다 관리가 더 안 되었는데요, 선글라스 커버가 없어지거나 가방 버튼이 부서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빌려온 소품을 소중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미리 캐스트에게 당부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분장

그냥 자연스러운 화장에 쉐딩만 조금 세게 했습니다. 분장이라고해서 얼굴 하얗게 하면 목과 색 차이가 더 커보였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턱 쉐딩을 강하게 했을 때 조명아래에서 구레나루랑 이어져보였습니다. 코 쉐딩을 세게, 턱은 약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정화장을 할 때는 기름종이보다는 파우더 형태의 노세범을 이용하는게 땀이랑 기름이 정리되니 꼭 구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눈화장은 쉐도우로 음영정도만 주고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는 하지 않았습니다.